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허라금 역음, 한울아카데미)

김문수*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여성 이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일상과 삶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지역에 어떠한 변수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로 나오게 되었다. 또한 여성 이주가 개인적 선택뿐만 아니라, 글로벌 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이주를 젠더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아시아 여성 이주, 가족의 변화, 그리고 향후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연변),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외부인이 아닌 현지인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지구화가 만들어내는 여성 이주에 관심을 갖고, 아시아 여성 이주로 인해 일어나는 각국의 현황,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비롯해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 보살핌 제도화 등에 이르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성 이주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가족구조 변화가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그런 변화가 아시아 지역 미래에 어떤 변수나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이라 하면은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많이 변하였는데, 2009년 국제결혼을 보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 대구대, 사회복지학, leo-k@hanmail.net

이 2만 5,142건으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결혼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아시아 여성학자들이 집필한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는 이렇게 지구화로 만들어진 아시아 여성들의 나라간 이동을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연구한 책이다.

사람들이 일을 하러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지만 21세기 지구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성 이주는 개인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라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아시아 여성의 이주가 개인이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변화를 가져 올 만큼 규모가 크며, 시장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저자들은 여성들이 이주 후 겪는 취약한 인권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주한 여성들이 다른 나라의 다른 가족은 돌보게 되나, 본인 가족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미국 네바다 대학의 강혜령 교수는 여성의 세계동력의 가치 하락, 의사결정에서 절차의 부당성 등이 아시아 여성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원대 김민정 교수는 여성의 미혼율 증가와 출산기피 그리고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급증으로 한국의 인구변화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쳐 기존 결혼제도와 가족관계에 새롭고 다변화된 양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다문화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이 반영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자국민에게도 다문화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된 사회가 올바른 다문화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아시아 여성들의 이주는 고국과 이주한 국가에서 여성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이주한 국가의 국민과 관계 등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새로운 경험으로 기존의 관념이나 습관들은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적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국적이란 무엇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는 3부로 되어 있으며 각부에서는 장으로 나누어져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1장에서는 긍정, 고통 그리고 임파워

먼트를 다루었다. 1장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긍정의 윤리학을 기술하였다. 긍정의 윤리학이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열정으로 변신시키고, 이에 따라 인내의 조건과 지속가능한 변신을 창조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생성하는 관계의 윤리학으로, 현재를 가치 있게 만듦으로써, 부정성에 대항할 힘과 능력을 현재와 결합시킴으로써 현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다. 핵심적인 개념으로 저항의식의 적대적 양상으로서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사회지평을 함께 건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초국가적 여성공동체와 지구적 정의에서 지구적 정의요구의 주체로서 초국가적인 여성공동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형성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와는 다르다. 그리고 여성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국경을 넘어 형성되는 추상적인 개별인간들의 공동체와도 다르다. 그들은 계층, 인종, 국적, 섹슈얼리티 구분이 사라진 하나의 보편화된 세계 여성단체에서 갈라져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공동체는 지구적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기반으로 그들의 계층, 인종, 국적, 섹슈얼리티에 위치에 있다. 지구적 정의 요구의 주체로서 초국가적인 여성공동체 개념은 다른 배경과 함께 작동하는 더 큰 초국가적인 여성주의에서 차지하는 정의의 틀 한 부분이다. 초국가적인 여성공동체 개념이란 정체성 정치학의 주체가 아니라 구조적 정의 요구의 주체이다. 이것은 빈곤함이 지구적 요인과 관련되지 않은 국경 밖 먼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의요구를 포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경을 넘어선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주 여성)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세계적으로 구조 요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들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일종의 세계 페미니즘에 의해서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정의 이슈를 밝혔다. 우리가 복합적인 형태의 부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 다층적인 정의 패러다임을 갖추는 것이 좀 더 충분히 정의 이슈를 언급하고 다루는 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3장 젠더와 재생산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전체적인 그물망 안에서 물질적인 재생산이 하나의 요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재생산은 레즈비언이나 스트레이트 여성의 자기-경험과 자기-이해에서

중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재생산 영역을 친족관계 영역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친족은 개인을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가족단위로 조직화하는 사회체계로 이해되는데, 그 안에서 역할, 관계, 기능이 규정되고 분배된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범주들을 어떻게 개정하고 재정의 할 것인가를 분석하면서 생물학적 재생산을 삭제하거나 소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재생산이 하는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부계주의와 이성애 규범이 정체성의 존재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젠더로부터 탈출할 필요도 없다.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3원 도식이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부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섹스 범주를 남자와 여자가 재생산의 가능성과 맺는 서로 다른 관계로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임신에 대한 객관적인 생물학적 필요사항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임신의 이원 기능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 섹스 범주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럴듯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개발시킬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 범주와 젠더와 섹슈얼리티 정체성 형성 상이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부 4장에서는 연변 조선족 농촌 여성들의 “한국바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특히 조선족 사회의 “한국바람”과 더불어 조선족들의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을 대신해 서비스산업이 조선족 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면서 조선족 사회의 “한국바람”에서 조선족 농촌여성들의 경제활동의 변화와 이들의 역할이 더 핵심적이라는 견해를 가진다. 연변은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며 총 인구 223만 명 중 조선족 인구가 82만 692명으로 총 인구의 36.75%를 차지한다. 2008년 현재 13만여 명의 연변 조선족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농촌에 자기 몫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 출신이다. 이 글은 연변의 조선족 마을인 H마을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선족 사회에 불어 닥친 “한국바람”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한국이주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농촌 여성들의 한국이주가 마을의 가족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바람”으로 인한 H마을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중국 조선족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조선족 사회 국제 이산가족의 보편화 현상에 대해 가부장적 “가족 위기와 해체”의 보수적 담론이 지배적이다. 둘째, 여성들의 한국 이주는 가족 내 성역할 변화를 의미하는데, 특히 조선족 사회에서 여성들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자녀양육, 남편보살핌, 노인보살핌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장기간의 중한이산가족 상태는 개별 가족의 가부장적 토대를 약화시키거나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간 마을 내부에서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담론이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변 조선족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주요 생계부양자와 가장으로 대변되는 조선족 농촌 남성들의 남성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이산부부관계로 인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선족들이 현재 고대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무연고 동포방문취업제는 실시된 지 몇 년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실무한국어 응시제도, 즉 인터넷 등록과정이 불공평하고 응시생들의 고시장 배정에 브로커들이 쉽게 개입되는 심각한 비리온상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둘째, 이미 8만 명에 육박하는 조선족 응시생들에게 1년에 2만 3,000여 명의 쿼터 할당인원을 H-2 비자로 입국시킬 수밖에 없기에 나머지 5만 여명의 조선족들은 시험에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추첨에 걸려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현재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출제기준이 소학교 정도의 조선어 수준밖에 안되는 보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중국 조선족들에게 억지 시험방법을 도입한 그 자체가 무의미한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많다. 조선족 농민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천 원의 여비를 팔며 수천 킬로미터 먼 타지에서 형식적인 저수준의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추첨에 당선되기 위해 또 수천, 수만원의 돈을 브로커들에게 “상납”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5장의 스리랑카 여성 이주노동자와 변화하는 가족에서 스리랑카에서는 사

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주를 새로운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서 해외이주는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에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주민 송출국이라는 평판을 얻어왔다. 스리랑카의 이주인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과 정치적 사유로 이주하는 사람들이다. 스리랑카는 두 종류의 이주 모두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여성 노동이주에 집중하였다. 이주자들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 벌어진 가족 내 젠더 역할의 변화는 이주 후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스리랑카 사회는 여전히 가사와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주에서 돌아 온 여성들의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이주자의 부재기간 동안 일어난 변화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스리랑카 사회는 남편이 혼외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자리를 비웠다고 이주자를 비난하며 혼외관계를 정당화한다. 이주자는 감정적으로 피폐해지지만 그녀는 가족을 남겨두고 떠난 데 대한 비난을 짊어진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원치 않는 행동을 용서하고 봐주는 것으로 그녀의 감정에 대처하고자 돌봄 제공 역할을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여성 이주는 국가의 외화 증대와 경제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주 경험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6장 태국불교의 영성 추구와 가족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영적 추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오늘날 지구화시대에 공적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은 가족내에서 여성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전문직 여성들이 자아 충족을 위해 가족생활을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집단의 다른 많은 여성들은 가족을 만들지 않고 오직 직업적 목표 추구에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기로 선택했다. 주요 이슈는 가족 외에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에게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에서 점점 더 많은 “전통적” 여성들이 자기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다. 전통적인 시대와 달리, 가족 내 여성

들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점점 쉽게 “자아실현”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가족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은 수십 년간 존재해왔고 동성 부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이 부재한 가족이 다문화 결혼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또한 피를 나눈 생물학적 혈통이 아니라 생활에서 “이식”된 가족에 대한 이런 실험들은 경제적, 사적, 선택적, 의료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며, 숙고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태국 불교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의 영적 추구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헌신적인 부인, 양육 잘하는 어머니, 충실한 딸로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근대적인 노동력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런 역할 모델의 이미지가 부처님이 베산타라 보살일 때 부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 여러 가지 미묘한 방식으로 종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는 많은 여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7장 떠도는 삶, 필리핀 “가족”과 해외 노동이주의 감정성에서는 지난 20년간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계약 노동자들을 통해 국제이주노동자로서 우위를 점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주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은 아시아 내에서 새로운 경험도 아니며, 필리핀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 글은 필리핀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진출이 가족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감정문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감정문화는 “필리핀” 가족의 근본원리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이주의 가장 큰 이유가 가족인 데 비해, “가족”이라는 바로 그 관념은 현재 노동이주 현상의 특징에 따라, 또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 관한 문화가정을 고집한 결과 시험에 들게 되었다. 해외 노동지위에 관해 현재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정치적으로 감정 담론임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해외노동자 경험에 관한 합리성 부분은 감정문화와 감정 이데올로기를 통해 촉진된 감정성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화는 기본적인 활동영역에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태도, 감정, 행동, 감정적 대응에 관한 “감정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진다.

필리핀 해외노동자의 노동에 관한 감정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는 담론을 통한 것이다. 필리핀 해외노동자 현상에 관한 합리성의 일부가 감정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콜린스의 이 주장을 기본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와 이주자들은 긍정적 효과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노동지위를 결정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만연한 감정 이데올로기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주한 여성(어머니)들 그들이 부재한 때조차도 그들의 일상적인 가족생활,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데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머니가 일차적 양육자로 규정되고 영속되는 사회에서는 이주한 어머니들, 특히 가사노동자들은 이중의 재생산노동을 하도록 요구된다. 해외 노동이주에 관한 현재의 경험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는 사회적·정서적 희생과 이득을 포함한 희생과 이득이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을지 모른다. 노동이주에 관한 현재의 근거와 실행이 가족의 경제적 보존을 목표로 함에 따라 이주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는 “가족”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8장 이주여성 가족들의 변화에서는 최근 지구화의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주문제가 베트남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시민들의 해외이주가 급증하고 있는데 크게 네 종류의 이주로 나뉜다. 가족결합, 연구 및 조사를 위한 해외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가 그것이다. 이주기간은 이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한정되고 정확한 기간 동안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결합이나 결혼이주 같은 장기이주도 있다. 여기에서 한국과 대만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결혼이주가 원인이다. 베트남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여성들이 합법적·불법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고 결혼했다. 많은 결혼이 급작스럽게 성사됐고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형태도 있었다. 개발도상국 시장경제에서 결혼은 시간과 감정의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돈이 수용되고, 결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인성, 사랑,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타 조건들을 도외시한 채 가족과 국가조건으로 비교된다. 이주 결혼은 경제의 문제이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상징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송출국은 빈곤한 반면 유입국은 부유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결혼과 이주에 관한 문제는 문화·사회·인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정부, 송출국과 유입국 국민들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비정부기구, 가족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결혼에 참여한 개인들의 책임이 요구된다.

9장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감정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을 이주결혼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감정, 사랑, 애정, 친밀성, 돌봄이 비물질적이고, 노동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여성성에 기반을 둔 역할이며, 경제의 영역과는 분리된 것이라는 근대적 신화는 결혼사업, 감정 및 서비스 노동, 돌봄 산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화 추세는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첫째, 사랑과 친밀성이 경제적인 요소와 협상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주결혼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약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별거 가족의 논의로 확대 될 수 있다. 둘째, 친밀성의 상업화, 상품화 추세는 젠더 질서를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적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어떤 교환은 불가피하나 혹은 필요하고, 어떤 교환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경계에 대한 논의도 향후과제로 남는다.

10장 국제결혼과 한국가족의 부계적 성격에서는 국제 결혼가족의 부계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지적인 가족의 경계와 자녀에 대한 통제에 대한 문제는 한국 가족에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제 결혼의 경우 이 두가지 문제는 친족관계와 젠더 인식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역설적으로 문화의 차이나 국가 간 위계라는 포괄적 문제제기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여러 상황과 문제들은, 오늘날 한국 가족의 부계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젠더와 함께 계층과 지역 등의 요인에 더해 국가 위계와 다문화적 상황까지 고려한 변화의 방향을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다. 11장 이주, 그리고 일본의 도전받는

“가족”, 12장 경계없는 가족?: 여성이주와 초국적 가족은 여성 이주와 관련하여 도전받는 일본의 가족을 연구하였다.

13장 한국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에서는 우리나라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정비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이 없으며 정책지향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사회란 모든 이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다원적 문화국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시각이 반영된 법제가 마련되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4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하의 보살핌 “위기”와 고향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그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령자 개호의 문제점을 보살핌의 “위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실태를 보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고령자 보살핌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령자 당사자에게 보다 나은 보살핌을 하기 위한 협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5장 동아시아 고령자 개호시스템의 전개와 과제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의 고령자 개호의 사회 보장에 대한 움직임과 그 과제를 연구하였다. 개호와 관련하여 개호하는 사람과 개호를 받는 사람 쌍방이 모두 젠더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파악하고 해결해가면서 진정 존엄한 말기 개호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해 갈 것인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다문화와 이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 인문·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주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역사가 비교적 짧은 만큼 학문적으로 그 논의의 폭이 넓지 않다. 한국, 일본, 중국(연변),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각지의 학자가 참여한 이 책을 통해 여성의 이주로 인한 아시아 지역 가족구조의 변화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변화

가 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어떠한 변수로 작동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연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결혼이주와 이주노동이라는 주제가 송출국과 유입국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여성 이주가 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글로벌 경제라는 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여성의 이주를 젠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책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